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8)]제2코스-④남성대 제1대피소~5·16도로 수악계곡

한라산 남사면 '환상숲길' 우량 赤松 벨트 이뤄

입력 : 2009. 05.28. 00:00:00



▲한라산 소나무림은 소나무 제왕이라고 불리는 금강송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라산 환상숲길이 통과하는 한라산 남사면 서귀포자연휴양림~5·16도로 수악계곡 일대 해발 600~700m고지에도 우량 소나무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탐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강경민 기자

서귀포자연휴양림~수악계곡 일대에도 분포 한라산 자락 우량 소나무 가치 재발견 필요

제주자치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입목지 6만4755ha 가운데 소나무 임지는 국립공원구역을 포함해 1만7132ha로 26%를 차지한다. 그만큼 소나무가 제주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제주산악연맹과 한라일보가 공동 전개중인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구간에도 우량 소나무림이 분포한다. 환상숲길에서 만나는 소나무림은 숲길의 품격을 한껏 높여준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소나무림은 소나무의 제왕 '금강송(金剛松)'에 버금가는 목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곰솔군락

제주에는 곰솔(해송)과 적송 두 종류 소나무가 분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소나무는 나무껍질이 붉은색을 띠는 적송을 말하지만 제주에서는 곰솔을 소나무로 부르는데 더 익숙하다. 곰솔이 저지대에 분포하는데 비해 적송은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 분포한다. 곰솔로는 제주시 산천단 군락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천단 곰솔나무는 도내 가장 오래된 소나무다. 이 곰솔의 후손은 지금 경북 봉화군 오록마을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김정목사(1735~1737)가 곰솔씨를 채취해 이곳에 심었다고 전해진다.

서귀포시 동홍에도 일제 때인 1940년 총독부 고시로 지정된 흑송 천연기념물이 존재했었다. 60년대에 고사해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 흑송은 바로 곰솔을 뜻한다.

제주 산림에는 곰솔과 같은 뜻의 해송이 일제시대부터 대대적으로 인공조림돼 왔다. 1922년 제주읍 아라리 한라산 국유림 지역에 갱신 조림으로 해송 10ha를 심은 것이 시초로 보고 있으며, 이 기록은 국유림 갱신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 50주년 되던 해인 1995년에는 전국 각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제고장 소나무를 남산에 옮겨심는 이벤트가 전개됐다. 이른바 남산 소나무 복원 행사였다. 남산 소나무 복원사업은 각 지방의 50년생 우량 소나무 5본씩 총 80여본을 식재했다. 이 때 한경면 저지리 중산간에서 굴취된 소나무(해송)가 남산에 이식됐다.

한라산 600m 이상 고지대에 분포하는 적송은 형질이나 건강도 등에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라산 적송 군락은 북사면 개미등~큰두레왓~족은두레왓~어리목과 석굴암 일대를 비롯해 남사면인 서귀포 선돌 상류에 우량한 형태로 광활한 면적에 벨트를 이룬다. 본지는 한라산대탐사 '한라대맥' 취재당시 개미등과 큰두레왓, 족은두레왓, 어리목 일대의 우량소나무림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한라산 적송

한라산의 소나무숲은 방목과 화입이 중단된 후 천이과정에서 자생한 자연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령이 40, 50년에서 1백년이 넘는 고령목도 분포한다.

국립산림과학원 향토수종 보존·개량연구팀은 지난 2004년 조사 때 한라산 관음사 등반로 해발 1250m 지점에 자생하는 소나무림의 우수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지역 숲의 소나무들은 일정 수령과 생육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1년 평균 재적생장량, 줄기의 곧은 정도를 뜻하는 통직성, 줄기의 모양인 형상도, 병충해 피해정도 및 잔가지나 솔잎의 활력을 말해주는 건강도 등에서 삼척 활기리나 울진 소광천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금강송과 유사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 소나무림은 목재적 가치 뿐만 아니라 남방 한계선에서 자라는 소나무로서 유전자원적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영실소나무림은 지난 97년 산림청에 의해 유전자원 보존림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0년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가 진행중인 서귀포자연휴양림~5·16도로변 수악계곡 해발 600~700m 일대 한라산 남사면에도 우량 소나무림이 집중 분포해 있는 사실이 탐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서귀포 선돌 상류에 우량 소나무림이 광활한 면적에 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소나무숲의 보존은 물론 이를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당국과 마을의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른바 소나무 가치의 재발견이다.

전문가들은 "한라산 소나무림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단발성 조사가 아닌 한라산 소나무림의 유전적 생육 특성과 분포역, 후계목 양성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후속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환상숲길의 소나무 숲

제주에 소나무와 곰솔 두종류 분포...아라동 산천단 곰솔, 한국서 최고



문화는 지역, 인종, 언어, 음식, 종교 등 구분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문화를 구별하는 방법 중 나무와 관련하여 문화를 구분하기도 한다. 너도밤나무로 대표되는 참나무 문화권과 소나무로 대표되는 소나무 문화권이다. 참나무 문화권은 유럽이며, 소나무 문화권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동북아 문화권이다.

동북아 문화권의 한, 중, 일 세 나라 중 유독 우리나라만 더욱 더 유별나게 소나무를 좋아하여 현재도 애국가에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은 소나무 지붕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로 만든 관에 묻힌다'는 것이 아주 큰 덕목이었다. 궁궐이나 부잣집을 지칭하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의 등뼈는 대부분 소나무이고, 임금님의 관을 짜는 나무도 소나무였다. 200년, 300년이 넘는 소나무로 나이테가 치밀하고 송진이 누렇게 나무 곁에 스며든 나무를 금강송, 황장목, 미인송 등으로 부르며 황실용 궁궐재나 관곽재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소나무'와 '삼나무'의 전쟁으로 비교하기도 한다. 과거 조선시대의 해전에는 총통같은 대포와 불화살 등이 등장하여 적함을 불태우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접전은 함선과 함선이 충돌하여 한쪽을 침몰시키는 전법이다. 이와 같은 전투에서 일본산 삼나무는 조선 소나무의 견고함에 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나무종류는 우리나라에 다섯 종류가 분포한다. 잎이 두매인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곰솔(Pinus thunbergii), 그리고 잎이 다섯매인 잣나무, 눈잣나무, 그리고 울릉도에만 자라는 섬잣나무이다.

제주도에는 소나무와 곰솔 두 종류가 분포한다. 소나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발고도 600~700m이상에 분포하며 다른 이름은 나무껍질이 붉은 색을 띄어 적송, 바닷가보다 내륙지방에 자라 육송, 곰솔보다 부드럽고 모양이 단아하여 여송으로 불리며, 자라는 지역에 따라 금강송, 춘양목, 안면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경북북부와 강원남부에 걸쳐 자라는 소나무는 따로 금강송이라 부르며 가치가 뛰어난 나무로 요즈음 불타버린 남대문 복원에 사용되는 나무이다.

곰솔은 소나무보다 낮은 지역에서 바닷가까지 분포한다.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서해안은 안면도, 동해안은 울진까지 자라고, 내륙지방에 일부 심기도 하였다. 나무껍질이 검은 색으로 흑송, 바닷가에 잘 자라 해송, 나무모양과 껍질이 단단하고 웅장하다고 하여 남송으로 부른다. 특히 바닷가의 모래땅같은 척박한 지역에서 바닷바람에 견디며 자라 바닷가의 방풍림, 보안림으로 심는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 자라는 곰솔은 키가 19~22m, 가슴둘레가 6m내외로 자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곰솔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다. <강영제/난대산림연구소>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